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

2021. 9. 1.

북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철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1623

나. 제안자: 성동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1년 8월 20일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2. 제안이유

급변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1인 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 4) 건강 지원
-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 6) 문화·여가 생활 지원

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5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15.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변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1조 목적에서 제11조 시행규칙까지 총 11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로 구청장은 1인 가구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구민은 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명시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4조와 제5조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함

●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함

●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젊은 세대의 비혼과 만혼의 증가, 가족해체, 이혼 및 사별 등 다양한 사유로 이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 형태¹⁾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소득,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1) 2021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의 수는 전체 가구수의 39.5%

분야 정책 과제 추진을 통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만들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나 조례 적용 대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성동구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134,493세대)의 42.4%이며, 그 중 청년층은 42.6%, 중장년과 노년층은 각각 28.6%와 27.9%로 1인 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올해 5월 '1인 가구 지원 정책 추진단(TF)'을 발족하여 대책을 마련에 나섰고 본 조례 제정과 함께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조성해 종합지원을 위한 중심 공간을 구축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으로 정책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적절한 조례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안전이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관심과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나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동시에 해당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 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